

공항·선수촌 2중 방역망...기동방역대·선별 진료소 가동



광주시 메르스 차단 총력전

광주시가 전 세계 젊은이의 대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동발 메르스 공포를 차단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광주 U대회 메르스 차단 매뉴얼 마련 및 선수촌 발열감지기 조기 설치, 특별기동방역대 구성 등을 지시하는 등 메르스 차단에 전력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이 아직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임에도 과도한 '메르스 공포'로 홍콩과 대만 등 일부 주변국들이 선수단 파견을 고민하는 등 대회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9일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U대회 메르스-에볼라 등 전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입국 선수단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조직위는 우선 선수단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공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각국 선수단은 검역소를 거쳐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증상이 없는 선수 명단은 검역소에서 대회가 열리는 각 시·도로 통보된다.

증상이 없는 선수로 선수촌에 입촌하더라도 경기 관련 의무실, 숙소에서 배치된 직원 등이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으로 대회 중 발병 우려에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실과 숙소직원 등은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는 광주시·질병관리본부·조직위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광주시는 대응 매뉴얼과는 별도로 메르스 예방 조치로 선수촌 발열감지기 조기 설치와 특별기동방역대·선별 진료소 마련, 감염관리 전문가 초빙 등에 나선다.

선수들 하루 2차례 모니터링

선수촌 발열감지기 조기 설치

홍콩·대만 "불참계획 아직 없어"

윤 시장은 이날 선수촌을 방문해 이 같은 선제조치를 지시하고, U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청 내 간부회의도 U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메르스로부터 선수단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열감지기(11대)를 앞당겨 설치하고 선수촌 출입 등 모든 과정이 이중, 삼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선수촌 병입구 쪽에 증상 발생시 우선 살필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대학병원 감염관리 관계자 등 전문가를 통한 시스템 점검 과정을 거치는 등 철저한 전염병 방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홍콩과 대만 등 일부 참가국들은 아직까지는 광주 U대회 참가 취소 계획이 없지만, 메르스 사태의 확산 여부에 따라 선수단 파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빈과 일본 등 현지 언론은 이날 "홍콩대학전문체육협회가 광주 U대회에 91명의 홍콩 대학생을 참가시킬 예정이며, 현재까지 참석 취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합회측이 메르스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광주 U대회 참석과 관련한 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만도 메르스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중앙통신은 이날 허쭈페이 대한 체육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바이러스 전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날 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선수들에게 안심하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허 사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24일 앞둔 9일 오전 참가 선수와 임원들이 머물게 될 선수촌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윤 시장은 메르스 예방에 전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모든 행정시스템 메르스 대응 체계로 전환 전남도, 보건소·의료기관 50곳에 선별진료소 설치

혁신도시 임직원 1000여명 서울 왕래...나주시 비상대책반 가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설치, 민관 공동 체계 구축, 의심환자 검사 가이드 라인 마련 등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매일 2차례에 걸친 메르스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모든 행정시스템을 메르스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 주재 간부회의도 메르스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시·과·국별로 자체적인 메르스 방어 대책도 마련됐다.

전남도도 이날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열어 의심환자, 검사 등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보건소 22곳, 의료기관 28곳

등 50곳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9일 오후까지 전화나 직접 방문해 메르스 관련 문의를 해온 469명을 상담했다.

정부는 9일 전국 535개 응급실 가운데 237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선별진료소에는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심환자 진료의료기관에는 시·군 역학조사관과 구급차를 파견 및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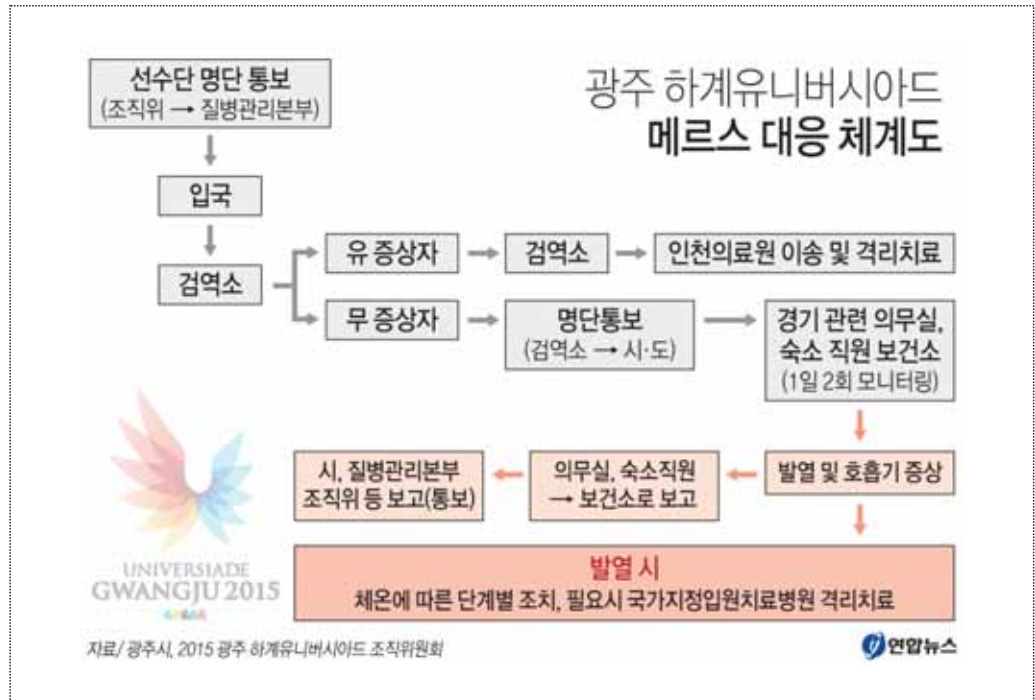
또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립병원 격리병상 10개를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0일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지난달 27일에는 환자격리시설 5단계 지정 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5일에는 본부장을 이낙연

전남지사로 격상한 바 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시도 메르스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혁신도시 임직원들만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 8일 강인규 나주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전파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논의 등 비상대책반 가동에 돌입했다.

나주시 보건소는 고열환자 발생 시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신고와 협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보건업무 담당자들과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부시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는 등 의심 환자 발생시 즉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d@



20일 예정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가을로 연기

대인야시장 '별장' 행사·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는 취소

20일로 예정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메르스 여파로 연기됐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가을철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인야시장 '별장' 행사·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는 취소

대인야시장 '별장' 행사·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는 취소

하는 별장프로젝트팀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지인 등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야시장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장프로젝트팀은 오는 26~27일 예정돼 있는 야시장 행사의 진행 여부는 향후 메르스의 확산 추이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대회'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주최측은 임박한 참가비는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HanaTour advertisement for a weekend trip to Jeju Island. Features a tropical beach scene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flights, accommodation, and car rental. Contact info: 062)228-1199.